

-(으)ㄴ/는 덕분에

~덕분에 (긍정적 원인)

공을 돌리는 이유 표현입니다. 결과는 항상 좋은 일이므로, 일이 잘 풀린 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명사	명사 + 덕분에	선생님 덕분에
완료된 행동	-(으)ㄴ 덕분에	돕다 → 도와주신 덕분에
동사, 현재	-는 덕분에	일하는 덕분에
ㄴ로 끝남	ㄴ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덕분에
관용 표현	덕분입니다	다 덕분입니다
결과는 반드시	좋은 일	나쁜 결과에는 탓에

■ 언제 쓰나요

명사에는 덕분에를 바로 붙입니다: 선생님 덕분에, 여러분 덕분에. 절에 붙을 때는 관형형 체계를 따릅니다. 동사 현재는 -는 덕분에, 완료된 행동은 -(으)ㄴ 덕분에, 형용사는 -(으)ㄴ 덕분에를 씁니다. ㄴ로 끝나는 어간은 ㄴ이 탈락합니다.

결과는 반드시 좋은 일이어야 합니다. 덕은 은혜나 혜택을 뜻하므로, 이 구문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나 대상에게 공을 돌립니다.

한국어 예절 표현에 고정적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.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는 ‘어떻게 지내셨어요?’에 대한 전형적인 대답이고, 덕분입니다는 칭찬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말입니다. 이 표현을 전혀 쓰지 않으면 의도와 달리 덜 겸손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.

비슷한 덕택에도 같은 뜻이며 조금 더 격식 있게 들립니다.

■ 예문

- 1 선생님 덕분에 시험에 합격했어요.
- 2 도와주신 덕분에 일이 잘 끝났습니다.
- 3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.
- 4 날씨가 좋은 덕분에 행사를 무사히 마쳤어요.
- 5 어머니가 매일 만드는 덕분에 건강해졌어요.
- 6 아닙니다.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탓에

정확한 짝입니다. 덕분에는 공을 돌리고, 탓에는 책임을 돌립니다.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표현이 정해집니다.

도와주신 덕분에 잘됐어요. (공을 돌림) / 준비가 부족한 탓에 실패했어요. (책임을 돌림)

-기 때문에

때문에는 중립적입니다. 덕분에를 써야 할 자리에 써도 문법적으로는 맞지만, 누군가 도움을 준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밋밋하게 들립니다.

선생님 때문에 합격했어요. (선생님 때문에) /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. (선생님 덕분에)

덕택에

같은 뜻의 약간 더 격식 있는 표현으로, 연설이나 글로 쓰는 감사 인사에 자주 씁니다.

덕분에 잘 지냅니다. / 여러분의 덕택에 성공했습니다.

■ 주의

✗ 비가 온 덕분에 행사가 취소됐어요.

○ 비가 온 탓에 행사가 취소됐어요.

덕분은 혜택을 뜻합니다. 반감지 않은 결과에는 탓을 씁니다.

✗ 어머니가 매일 만드는 덕분에 건강해졌어요.

○ 어머니가 매일 만드는 덕분에 건강해졌어요.

ㄴ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형 체계 어디에서나 그렇듯 -는 앞에서 ㄴ이 탈락합니다.

✗ 선생님 때문에 합격했어요.

○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.

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, 때문에는 중립적이어서 오히려 탓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. 감사를 전할 때는 덕분에가 기대되는 말입니다.